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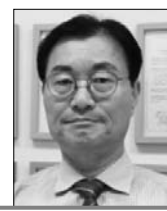
투데이 칼럼

식품의 변신은 무죄다

어릴 적에 밤바닥에 밥풀을 흘리면 부모님에게 꽤 혼이 난 기억이 있다. 밥풀 한 알이라도 태양의 신들이요, 농민의 피와 땀이 배에 있는 것이니 매우 귀한 것이고 소중히 생각하라는 가르침이었다. 군대에서도 (소위 짬밥?이라 불리는)잔반(殘飯)을 남기지 않으려 했고,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로 밥을 남기거나 소량이라도 식품을 버리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한다. 그만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품물은 자연이 준 귀하다 귀한 생명력의 원천이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약80억 명을 넘어섰고, 2011년 70억 명을 넘어선 이후 11년 만에 10억 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1974년에 40억 명이었던 48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 중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인구 중에 현재 굶는 인구가 얼마인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8억2800만 명 정도가 기아상태라는 것이다. 즉 10명중에 1명은 기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리



이 윤 희
파스코 대표

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 방안이 시행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의 위 무서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평소 그냥 먹고 버리는 식품,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먹고 난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 그런데 바나나 껍질을 수거, 세척, 건조 후 각종 소스에 재워다가 바삭하게 구워주면 그 자체가 훌륭한 간식이요, 멋진 음식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가정에서는 귀찮고 약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

지만 식품산업에서는 바나나 칩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껍질을 이용하여 스낵, 주스, 감미료 등으로 판매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식품 생산량의 약 30%정도가 소비되기 전에 버려지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9년 전체 음식물쓰레기량의 약25%(총 2만1,065톤 중 5,066톤)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버려진 음식물이라고 한다. 이런 식품부산물은 다양한 식품산업의 제조 공정에서도 발생하며, 상품성이 썩 떨어진다고 하여 버려지던 (크기, 모양, 무게, 맛, 식감, 색상 등의 이유로)식품 폐기물도 새로운 제품을 만

들어 내는 것을 식품재활용(food upcycling)이라 하며 가능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설적인 흑토(chernozem)로 알려진, 전 세계 밀 생산의 10%정도 점유하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노동력감소, 비료, 제초제 부족, 농기계 연료 부족 등으로)밀 생산이 줄어들었으며, 전 세계적인 3년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 이동이 줄어들었고, 기후 이상에 따른 작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식량부족, 식량 가격 상승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서서히 버려지는 음식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우리 집, 업소, 매장, 식품공장 등의 냉장고에 고이 간직하고 하고 있다가 버려지는 음식물), 관련업계, 학계에서도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온갖 노력이 결실을 거둬 가면 일부나마 식량 부족, 가격상승을 극복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당선중' 받는 룰라 대통령 당선인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오른쪽)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최고선거법원에서 '당선중'을 받고 있다. 이날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루이스 당선인이 국민에 의해 적법하게 선출됐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당선중 수여식'을 열었다.

힐 장군 동상 철거하는 미인부들



12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A.P. 힐 장군의 동상이 철거되고 있다. 힐 장군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으로 활약했다.

사설

2023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전북도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도는 12월 5일부터 28일까지 도내 14개 시 군 노인일자리사업 103개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를 접수하고 있다. 참여자 모집은 4가지 분야다. 공공형은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0,841명을, 사회서비스형은 은퇴 노인의 경력을 살리며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262명을, 민간형(시장형, 취업알선형)은 일정 기간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4,136명(시장형 2,748명, 취업알선형 1,388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익 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 원칙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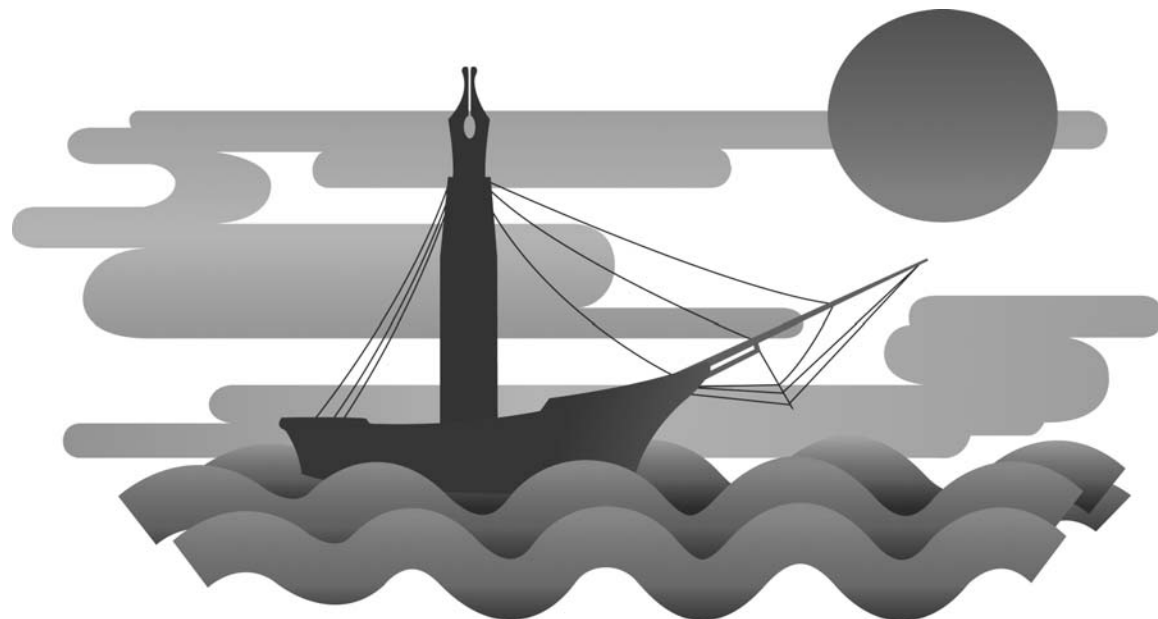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일부유형에 한해서는 만 60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활동하게 되며 공공형 참여자는 월 30시간 활동으로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월 60시간 활동으로 최대 71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민간형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된다.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나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 읍면동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최종 선발 여부는 내년 1월 6일까지 개별 통보 된다. 노인일자리는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기 바란다.

쌀값 폭락에 멧든 농심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낡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순창에서 농사를 짓는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도의회 입구에서 단식을 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시름이 깊다며, 전라북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근본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도 촉구했다. 도청 앞에서 농성하는 농민단체들 역시 낡은 쌀값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이 사라진 만큼 양곡관리법이라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맡겨져 있는 쌀 시장가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쌀 생산량이 예상치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퍼센트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두 달 전 국회 농해수위 통과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쌀이 남아도는데 오히려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60일이 지나면 다시 상임위로 보내지고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쌀값이 25% 폭락할 때까지 정부가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일단 시장 격리가 중요하다. 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빨리 자동으로 복원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변동직불제도 부활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겠다는 정부와 여당, 이에 맞서 반드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농민단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